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19:00	
--------------	--------	--------------	--

● 수녀님 인사이드

오시는 분	김성민 젤투르다 수녀님	중·고등부
	최엘라 미카엘라 수녀님	유·초등부
	이혜경 젤투르다 수녀님	꿀벌유치원 원장



* 수녀님 환영 합니다 *

이곳에서의 생활이 기쁘고 보람 되시며
항상 영육 간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알 림

- 사순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은 매일 2번 미사 40분 전 (아침 5:50, 저녁 6:20)부터 시작합니다.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울뜨레아	2/18(일) 교중미사 후	지하강당
· 만나회 월례회의	2/19(월) 오전10시	6교실
· 제대회 월례모임	2/20(화) 오전11시	1교실
· M.E 월례모임	2/25(일) 교중미사 후	6교실
· 성체분배자 성시간	2/26(월) 19시 45분	성체조배실

● 예비신자 교리반 첫모임

- 일 시 : 3/11(일) 12시 / 6교리실
- 기 간 : 8개월 / 교재 : 함께 하는 여정

(일) 낮 12시	최상남 요왕
(화) 저녁 8시	홍훈표 이시도로 신부님
세례 예정	2018년 11월

● 사순특강 (목요일 저녁 8시)

날 짜	주 제	강 사
3/8	사이비 예방교육 (신천지를 중심으로)	김형진 신부님
3/15	아름다운 보속	신현문 신부님
3/22	F.살레시오 성인의 삶과 영성	양승국 신부님

● 태중 아기 축복식

- 일 시 : 2/24(토) 저녁 7시 토요일미사 중
- 대 상 : 소중한 생명을 가지신 임산부

● 첫영성체 교리신청 안내

- 대상자 :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3~6학년 어린이 (2018학년도 기준)
- 교리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30분
- 첫모임(O.T) : 2/25(일) 초등부 12시 미사 후(부모님과 어린이 참석)
- 신청비 / 신청마감 : 70,000원 / 2/25(일)까지
- 접수처 : 초등부 주일학교(초등부 미사 전·후 / 사무실(평일))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

- 일 시 : 2/25(일) 교중미사 후
- 장 소 : 주임신부님 사무실
- ※ 구역장·반장님은 전입교우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참석바랍니다.

* 성경 공부 안내 *

- 주 제 : 성경, 하느님과 인간의 이야기 (변화된 삶으로 부르심)
- 일시 / 장소 : 3/2 ~11/30 매주 금요일 19:50 / 대성전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3/2(금)까지 / 사무실
- 접수비 : 30,000원 (5만원 중 2만원 본당지원)
- 강 사 : 임숙희 레지나 신학 박사
- ※ 2018년 사목목표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의 실천 두 번째로 전신자 성경공부를 실시합니다.

● 청소년 분과

• 2018 유초등부 등록 안내

- 일 시 : 2018년 2월 11일 / 2월 18일 (2주간) (오전 11시 ~ 오전 11시 40분)
- 대 상 : 유아(4세, 5세)~ 초등부6학년
- 등록비 / 등록장소 : 5,000원 / 교육관 소성전
- * 문의연락 : 박승운 마리아 010- 5736-4001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2018년도 유·초등부 미사시간 변경

- 동아리 활동 : 11시 / 미사시간 : 12시
- 장 소 : 소성전

• 2018년도 중·고등부 미사시간 및 장소변경

- 부서 활동 : 9시 / 미사시간 : 10시
- 시작일시 / 장소 : 2/18(오늘) / 소성전

* 청·장년들을 위한 성경공부 *

- 대 상 : 35~45세(결혼 유무 상관없음)
- 시작일시 : 3월 첫 주일부터 / 매주일 오전
- 동반 / 접수 : 이민규 엘리야 신부님 / 사무실
- ※ 청·장년들을 위한 성서40주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 2018년도 상반기 청년성경모임 그룹원 모집 *

- 과정 / 대상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 청년
- 문의 : 김형란 세실리아 010-7301-6253

● 구역미사 안내

- 전반기(3~6월) 한번, 후반기(9~12월) 한번 구역과 성당(지하강당)에서 연간 두 번 거행됩니다.
- 구역, 반모임, 형제모임은 구역별 실시합니다.

● 다음 주일(2/25)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21구역	청 소	11구역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 성체 분배자 명단

날짜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2/18	장인홍	박승환	김광수 손상민 박용환	최상남	최승일
2/25	장인홍	황태영	김인기 박형순 황태영	김광수	최승일

회답송



주 님 당 신계약을 지-키 는이 들에-게 당 신 의모든길 은 자애 와진 실이옵니 다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써 주세요.)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2/18	손진희	도현문 심재순 서윤석 유숙중	강칠등 고수현
2/25	최경희	오성환 조훈환 신종구 김현철	박영호 정홍자

◎ 2018년 살레시오청소년리더십교육

- 모집정원 : 중·고생 30명 내외
- 일 정 : 3일 과정(09:30 / 마지막날 12:00까지)
- 교육비 : 15만원(2회 점심, 워크북, 간식일체)
- 입 금 : 우리은행 1005-602-45167
- 강사 / 문의 : 김용은 수녀님 / 844-0388(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 방송인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교실

과 목	대 상 자	시 간
1.영화 만들기	청소년 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토요일 오후 1~3시
	성인 반	목요일 오전 10시
2.스피치 교육	청소년 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토요일 오전 10시
3.스토리 텔링		
- 장 소 / 개강일 : 교육관(소성전) / 3/10(토)부터 - 수강료 : 월10만원 - 문 의 : 박경석 보스코 수사님, 주일학교 담당신부님 (6738-2200)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89. 지상 재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재화와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모든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인간은 삶에 필요한 것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소유권이 존재하고, 사람들 사이에 소유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삶에 필요한 것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없다면,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0. 사유 재산이 존재할 수 있나요?

사유 재산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이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유 재산은 평화와 함께 재화를 더 잘 이용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유 재산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종속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관리하고, 파괴로부터 지키도록 합니다. 이에 비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질은 자주 황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사명을 갖도록 독려합니다. 따라서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민주주의적인 경제 질서의 기초입니다. 사유재산으로 인해 비로소 모든 사람이 경제 순환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1. 사유 재산의 한계는 어디에 있나요?

사유 재산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필요하지만, 사유 재산권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길거리의 가로등과 같은 공동 재화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같이 사적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 처해서 비상 호출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휴대폰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유 재산은 지상의 재화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특정한 사물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실제로는 아무도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유 재산이 공동선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